

190만 시민들의 철야 함성... 피의자 박근혜 국민들이 포위했다



광화문 5차 촛불집회

민중총궐기때보다 더 많은
역대 최대 인파 집결
완벽한 평화집회 이뤄내
저녁 8시 정각 1분 소등
시민들, 구호 외치며 행진

최후의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주말 5차 촛불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이 집회에 참가한 수많은 시민들은 우리나라의 새 역사를 장식했다.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지난 26일 저녁 6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즉각 퇴진 5차 범국민행동(촛불집회)을 개최했다. 이날 촛불집회에는 주최측 추산(마지막 집계 오후 9시40분)으로 연인원 서울 150만명, 지방 40만명 등 전국에서 190만명이 참여했다. 주최측과 집계 기준이 다른 경찰은 오후 7시 40분에 순간 최대 인원 27만명이 모여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역대 최대 인파가 집결했음에도 거의 완벽한 평화집회가 이뤄졌다. 경찰은 27일 0시 기준으로 연행자 0명이라고 밝혔다. 서울 낮 최고기온이 3도를 기록하는 등 추위 속에 눈과 비까지 내리는 날씨 변수로 시민의 참여가 줄어들지는 아니라는 예상도 나왔지만 기우일 뿐

이었다. 오후 8시에 이미 광화문 일대에만 130만명(전국 160만명)이 몰려들면서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이전 역대 최대 규모는 지난 12일 민중총궐기대회로 100만명(경찰 추산 26만명)이 참여했다. 시민들은 두꺼운 패딩 등 방한복을 챙겨 입고 나왔고 눈과 비가 내릴 것에 대비해 우의와 우산을 미리 챙겨오는 등 준비 또한 철저했다. 시민들은 "박근혜는 하야하라", "박근혜를 구속하라" 등을 외치며 분노를 표출했다. 또, 몇몇 시민들과 학생들의 자유발언에 공감했으며, 뮤지컬 공연을 감상하고 가수 안치환씨와 양희은씨의 노래를 따라부르며 집회를 즐기기도 했다. 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8시 정각에 모든 전깃불을 끄는 1분 소등 행사를 진행했다. 대한민국의 상황을 암흑에 비유하며 촛불로 어둠을 걷어낸다는 의미가 담겼다. 퇴진행동은 본집회를 마친 뒤 오후 8시부터 9개 경로로 2차 행진을 진행했다. 이 행진은 세종대로 사거리에서부터 덕수궁·돈의문·송례문으로 향하는 서쪽 경로와 안국동·종로·을지로·한국은행을 지나는 동쪽 경로로 구성됐다. 종착점은 청와대 근방인 경복궁역 교차로였다. 시민들은 오후 10시 20분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음에도 구호를 계속 외치며 행진을 이어갔다. 퇴진행동은 행진을 마친 밤 11시부터 27일 오전 5시까지 광화문광장에서 '첫차 타고 집에 가자' 1박2일 행사를 이어갔다. /김민근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제5차 범국민행동 촛불집회가 열린 지난 26일 밤 참가자들이 서울 세종대로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촛불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전주시민들도 "박근혜 구속"

비바람이 불어도 촛불은 꺼지지 않는다

전북도민 3차 총궐기 대회
2차 총궐기 때와 같이
학생들도 대거 참여
문화공연들도 다채
풍남문광장까지 행진도

아침부터 내린 비바람도 타오르는 촛불 민심을 막지 못했다. 지난 26일 3차 민중총궐기가 열린 전주 팔달로에는 수천여명의 시민이 모여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집회를 주최한 전북사회회의에 따르면 이날 저녁 7시 기준 전주 팔달로에는 5,000여명(경찰 추산 3,300명)의 시민이 모여 촛불을 밝혔다. 애초 경찰과 전북사회회의는 집회 전부터 비가 내리면서 참여 인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으나 박근혜 정권을 향한 시민들의 분노는 예상보다 거셌다. 집회 장소에 나선 시민들은 비가 내리는 날씨 속에 미리 준비

한 우비를 입거나 우산을 쓰고 차곡차곡 자리를 메웠다. 지난 19일 열린 2차 총궐기 때와 같이 부모의 손을 잡고 나선 아이들과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자주 눈에 띄었다. 거리에 나온 시민들은 '박근혜 정권 해체하라', '박 대통령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촛불을 높게 쳐들었다. 시민들은 "대통령은 더 이상 민심을 거스르지 말라.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 장소에 마련된 무대 위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문화 공연이 펼쳐졌다. 시민들은 '아리랑 목동'을 개사한 '하야가'와 전민권의 '걱정말아요 그대' 등을 따라 부르며 촛불을 흔들었다. 저녁부터 비가 그치면서 거리에 나선 시민들이 더 늘었다. 전북사회회의는 저녁 8시까지 문화 공연과 자유 발언 등을 마치고 시민들과 함께 풍남문광장까지 행진한 뒤 집회를 마무리했다. /김민근 기자

교육부 "국정교과서 철회 없다... 오늘 현장검토본 공개"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공개한다. 교육부는 국정 교과서 철회 방침을 세웠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계획대로 28일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라면서 "국정화 철회나 국·검정체제를 혼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현장검토본이 28일 공개되면 내용을 보고 국정교과서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전용 웹사이트에 e북 형태로 국민 의견수렴은 비공개 진행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28일 전용 웹사이트에 e북 형태로 공개하고 브리핑을 통해 편찬기준과 집필진을 별도 발표한다. 국정교과서 집필진은 47명으로 교수·연구원, 중·고등학교 교원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부는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 브리핑이 열리는 시간 웹 사이트도 일반에 동시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웹 사이트를 통한 국민 의견수렴은 실명인증을 거쳐야 하는 비공개 형식으로 한 달가량 진행된다. 교육부는 국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오류를 지적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사실상 차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편찬심사기준과 집필 과정을 심의할 교과서 편찬심사위원 명단(16명)의 경우 최중본이 나오면 공개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정교과서는 고등학교 '한국사'와 중학교 '역사' 등 2종이다"면서 "교육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 국정교과서 최종본을 확정하고, 내년 2월초에 교과서를 인쇄해 3월 중 전국 중·고교 6,000곳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전북현대, 10년만에 아시아 정상 탈환

알아인과 ACL 결승전서 1-1 무승부... 통산 2번째 챔프 등극

전북현대가 10년 만에 아시아 정상 탈환했다. 전북은 지난 26일 밤 11시 25분(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알아인 의 하저빈 자예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알아인과의 2016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결승 2차전에서 1-1로 비겼다. 지난 19일 안방에서 가진 1차전을 2-1로 이긴 전북은 1·2차전 합계 1승1무로 우승 트로피에 입을 맞췄다. 2006년 이후 10년 만에 밝은 아시아 정상이다. 통산 2번째다.

포함스틸러스가 3회 우승으로 최다인 가운데 전북은 수원삼성, 성남 FC(이상 2회)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10년 전, 전북의 우승을 이끌었던 최강희 감독도 2번째 우승을 맞았다. 최 감독은 K리그 4회 우승, 챔피언스리그 2회 우승으로 명실상부 최고 명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날 우승으로 전북은 K리그 3연패 실패의 아픔을 씻었다. 한편, 전북은 AFC 챔피언스리그 우승팀 자격으로 다음달 일본에서 열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에 출전한다. /김민근 기자

군민에게 믿음 주는 열린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장수군의회
http://council.jangsu.go.kr